본당의 해 Ⅱ (2018-2020년)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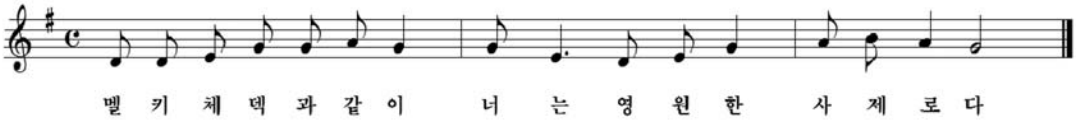
2019. 6. 23.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루카 9,16)

이스라엘 빵과 물고기 기적 성당
교구가톨릭사진회

제1독서 창세 14,18-20 **제2독서** 1코린 11,23-26 **복 음** 루카 9,11ㄴ-17

화 답 송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복음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제2060호] 발행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 전자우편 hongbo@gjcatholic.or.kr | 전화 062) 380-2811 www.gjcatholic.or.kr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허기진 군중 앞에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정성스럽게 손에 들고 말씀하십니다. “받아라. 그리고 나누어라. 이는 곧 내 몸이며 내 사랑이니, 너희도 나를 닮아 서로에게 그렇게 행하여라!”

예수님은 2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매일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십니다. 미사성제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당신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이 앞으로 따라야 할 사랑의 모범을 미리 보여줍니다. 사랑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더욱 커지고 불어난다는 사실, 채우고 가두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내려놓을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영성체는 단순히 빵조각을 입에 넣고 내 바람을 청하거나 내 가족의 행복을 비는 행위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영성체를 그저 세례받은 신자임을 드러내는 요식행위 정도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와 이 땅 위에 함께 살고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자 당신의 온 생애를 비워내신 것으로도 모자라 결국 당신의 목숨까지도 비워내신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성체 성혈 대축일인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다른 특별한 무엇이 아닙니다. 성체성사에 관한 어려운 신학적 개념을 이해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동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사랑하려 애쓰고 있었는지, 혹여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다잡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누어주시고, 사제를 통하여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하시며,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이어갈 것을 부탁하십니다.

우리 신앙인들 각자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 있는 감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선호 안드레아 신부
연향동 본당

낭만주의 음악과 롯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 :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조아키노 롯시니 Gioacchino Rossini, 1865

음악사에서 낭만주의는 대략 1810년에서 1910년까지를 지칭합니다. '낭만'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어 '로망 *Roman*' 즉, '소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프랑스 소설은 대부분 중세 기사의 영웅담, 궁중여인들의 연애를 담은 비화 등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소설을 '로망스 *Romance*'라고 하였습니다. 1810년경부터 '낭만'이라는 용어가 음악에 등장하였고, 낭만주의 음악은 고전주의 시대부터 내려온 독일 음악에 낭만적인 요소가 융화되면서 서정성을 함유한 새로운 음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문학 작품(시, 소설, 신화 등)이 음악과 결합되어 느낌이나 상상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표제음악이 등장하고, 풍부한 시로 만든 예술가곡 같은 새로운 장르가 생겨났습니다. 이 시대의 교향곡과 오페라(음악극)는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의 교회음악은 교회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적 음악과 연주를 위한 음악이 많았습니다.

오페라 '세빌리아(세비야)의 이발사'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조아키노 롯시니 *Gioacchino Rossini*(1792-1868)의 작품입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중에서 '스타바트 마테르'를 소개하겠습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양 시대를 걸쳐서 오페라 작곡가로 활동했던 롯시니는 약 40편의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37세 때에 "이제는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롯시니는 76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더 이상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로시니는 말년에 교회음악을 주로 작곡하였는데, 널리 알려진 교회음악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유명한 교회음악은 '스타바트 마테르'입니다.

스페인의 부호의 부탁을 받아, 1831년에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작품을 넘겨 줄 당시에는 곡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여서 나머지 부분을 그의 친구인 작곡가 죠반니 타돌리니 *Giovanni Tadolini*가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롯시니는 타돌리니가 작곡한 부분을 다시 작곡해서 10년이 지난 1841년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스타바트 마테르'는 십자가 곁에서 비통하게 우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슬픔을 아름다운 비애로 묘사한 찬미가입니다. 이 찬미가의 가사는 총 20연으로 되어 있는데, 13-14세기 경에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쟈코포네 다 토디 *Jacopone da Todi*가 쓴 것이라고 합니다.

1-8연은 성모님의 고통이 묘사되어 있고, 9-20연은 성모님의 고통에 동참하여 천국영광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찬미가는 1727년부터 점차적으로 전례에 도입되어,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9월 15일)에 부속가로 불리게 됩니다.[1]

'스타바트 마테르'는 전체 10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20연의 내용이 9곡으로 작곡되어 있고, '아멘. 인 셈삐떼르나 쎄꿀라(아멘. 영원 무궁토록 : *Amen. In sempiterna saecula*)'의 텍스트를 추가하여 열 번째 곡이 작곡되어 있습니다. 독창, 중창, 합창 그리고 오케스트라 악기로 편성되어 있는 이 작품은 교회음악이지만, 격정과 애상적인 감정 뿐만 아니라 경쾌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탈리아 아리아[2] 의 서정적이고 유려한 선율, 명쾌한 오케스트라, 독창과 중창의 대비가 작품 전체에 드러나 있습니다.

추천음악 : 롯시니의 스타바트 마테르 *Stabat Mater* : 십자가 아래의 어머니

1) 참고 : 「전례사전」
2) 아리아 (이탈리아어 : *Aria*)는 서정적인 선율을 말한다.
오페라 · 오라토리오 · 칸타타 등에 나오는 기악반주의 선율적인 독창곡.

백정빈 모니카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교회음악원

너와 함께 있겠다

윤가훈 미카엘 신부 / 운암동 성당

"엄마, 나 신부님이 될래요."

무엇을 안다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어머니께 신부님이 되고싶다 당당하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초등학생 아이였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게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제성소에 응답하는 신학교에 들어간 이후 사제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면 배울수록 선명해지는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사제가 되기엔 모자라다.'

차라리 사제성소를 받는데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아이 때부터 그저 '사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었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스스로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의 '성소'는 그렇게 '부족함'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잘하는 것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그저 부족함 안에 갇혀있었던 때에 하느님께서는 제게 성경으로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탈출 3,12)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모세는 자신이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보잘것없던 모세였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사업을 시작하시고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뤄나갔습니다. 사실 저는 늘 저의 부족함 그 자체를 바라봤지만, 성소는 스스로의 능력이 아닌 하느님께서 이뤄 가시는 것이며, 그분께 의탁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함은 그저 한계가 아닌, 하느님을 초대하는 자리였지요. 이제는 이 말씀을 쥐고 살아갑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하심으로써 저는 감히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제란 마지막 날까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느님께 오늘도 죄송스럽고 겸연쩍은 마음으로 말씀드리지요.

"주님, 저 사제가 될래요."

돌아보니 고마워 -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

누구나 각자의 삶은 수많은 후일담으로 이어집니다. 더 소중하고 마음을 울리는 일이 있다면 내 생애의 걸음을 되짚어보며 꼼꼼히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내는 일이겠습니다. 조곤조곤 펼쳐놓는 한 사제의 체험담이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엿보는 즐거움과 아름다운 문체까지 겸비한 예사롭지 않은 재주꾼 사제의 에세이집,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의 저자 김대우, 그는 가톨릭 사제입니다. 그의 이름 석 자를 두고 회자된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국 피디가 저에게 대뜸 "이름처럼 '대우'를 잘 해드려야 할 만큼 멋진 글이네요."라고 웃으며 소감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라고 고백한 표제의 책은 피상적이지 않아 더 고마움으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가난의 굴레 속에서 어머니가 일하시던 재봉틀 소리가 그렇게도 싫던 어린 시절, 문득 철이 들고 보니 어머니의 말없는 희생이 눈물겨웠다는 고백이 누군가의 얘기와 닮을 수도 있어 더 공감을 불러냅니다. 이렇게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되는 내용은 평범한 일상과의 만남, 사귐과 헤어짐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신비에 눈이 열리는 한 사제의 깊고 맑은 영혼을 따라 걸음을 옮기게 합니다. 어쩌면 내 삶 속에 들어와 박힌 수많은 순간들 또한 그렇게 소중한 것임을 미처 몰랐음을 깨우치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의 책이 독자들에게는 올 여름을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 같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신간들 속에서 나를 살리고 키워주는 책을 고르기 위해 서성일 필요 없이 집어 들고 읽어 보시라고 말하고 싶은 책, 「그래서 오늘은 그토록 신비롭다」는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사람들 안에서 발견한 하느님의 섭리와 기쁨, 슬픔까지도 녹여낸 한 사제의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인연과 소소한 사건들을 잘 기록해 놓는 습관이 좋은 책을 낼 수 있다는 섬세함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삶을 소중히 엮어 가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신비스런 존재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의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특별히 병과 내적 상처로 고통 받는 이들과의 만남에서 영감을 얻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밖에 쉴 수 없는 이에게 푸른 바다와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느님의 손길이 자신을 떠났다고 여기는 이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하찮은 노력일 수도, 별 볼 일 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나 누군가를 미소 짓게 하고 공허한 마음을 온기로 채워줄 수 있다면 나 역시 신비로 물들 것이다."(본문 중에서)

이 책을 통해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라고 혼잣말을 하며 조용히 책장을 덮습니다.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성 바오로 딸 수도회)

사제수품 50년 금경축

지난 50년간 교구 발전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김홍언 요한 보스코, 정형달 바오로 신부님의 금경축을 축하해 주시고, 미사와 기도 중에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축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미사 : 6.28(금) 10:30-13:3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 이날 금경축은 사제성화의 날 행사와 겸함으로 사제단만 참석합니다. 교우들께서는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언 신부

정형달 신부

교구장 대주교님 동정

6월 23일 견진, 사목방문(일로 성당)
6월 24일 체나콜로 10주년 기념미사(염주동 성당)
6월 25일 한반도평화기원 미사(임진각)
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6월 26일 군종(공군) 사목방문
6월 27일 교회내 성폭력방지 특별위원회
6월 28일 사제 성화의 날
6월 30일 견진, 사목방문(신동 성당)

총대리 주교님 동정

6월 23일 견진(화정3동 성당)
6월 24일 체나콜로 10주년 기념미사(염주동 성당)
6월 25일 한반도평화기원 미사(임진각)
6월 26일 UN고문생존자 지원의날 기념 오찬
6월 28일 사제 성화의 날
6월 30일 견진(두암동 성당)

사목국

선택 월미사

일시 : 6.27(목) 20: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경당
대상 : 선택주말을 수료한 모든 분
문의 : 010-9030-3908

신약통독피정

일시 : 7.12(금) 09:00-14(주일) 13:30
주제 : '하느님, 예수님, 교회' / 참가비 : 10만 원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연수관
접수문의 : 7.2(화)까지 062) 380-2260

제63기 성요셉 아버지학교(목포신안 · 무안지구)

일자 : 8.3(토)-31(토) 5주간
매주 토요일 17:30-23:00(저녁식사 제공)
장소 : 목포 하당 성당 / 대상 : 모든 아버지들
인원 : 정원 36명 / 수강료 : 12만 원
입금계좌 : 농협 351-0463-7156-83(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및 접수 : 하당 성당 061) 281-7004, 010-3624-8605

사회 사목국

교정사목 봉사자 월례미사

일시 : 6.25(화) 10:30 / 장소 : 임동 주교관 2층 경당
문의 : 062) 510-2822

관리국

교구청 직원채용 공고

분야 : 주방직(환경미화 포함) 1명
자격 : 조리사 자격증 우대
제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접수 : 6.28(금)까지, 인사위원회 062) 380-2805

청소년사목국

청소년캠프 워크숍

일시 : 7.7(주일) 14:00-17:00
장소 : 광주가톨릭청소년센터
대상 : 청소년캠프 신청 본당교사
내용 : 캠프안내 및 본당 준비사항 공지
문의 : 062) 380-2273~4

정의평화위원회

함께하는 세상을 위한 미사

일시 : 7.1(월) 19:00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
특강 : 남북관계와 평화 / 강사 : 진희관 교수(인제대학교)
문의 : 062) 380-2290

사제 인사이동

사제	발령 직무	현 직무
유기영	정 직	목포가톨릭대학교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com FM 99.9 MHz FM 99.5 여수 MHz
페이스북 kjpbc99.9mhz 트위터 kjpbc

오늘의 강론 [월-토(본방송) 06:50-07:00] [월-금(재방송) 16:50-17:00]

6.24(월)-26(수) 김용민 신부(임동 본당) / 6.27(목)-29(토) 정형태 신부(용봉동 본당)

(선교 프로그램)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 생생, 교구 속으로' [6.24(월) 14:05-14:20]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일 기도 현장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을 애청해주시는 교구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주파수 광주 FM 99.9Mhz, 여수 FM 99.5Mhz
2. 플레이(앱)스토어에서 '광주가톨릭평화방송'을 검색해 어플을 내려 받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3. 방송국 SNS(페이스북→유튜브)를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 할 수 있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페이스북 '친구맺기' : 페이스북→'광주가톨릭평화방송on-Air'(검색)→'좋아요' 클릭→완료
★ 유튜브 '구독하기' :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검색)→빨간색 '구독' 버튼 클릭→완료
★ **시청 가능 코너** : 선교 프로그램 (화요일-최종훈 신부의 '당신 말씀은 내 삶의 등불[14:05-25]', 손석준 교수의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상식[14:35-14:50]', 금요일-김계홍 신부의 '새 신자의 눈으로 [14:05-14:25]'), 시사 프로그램 (수요일-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의 '톡 쏘는 정치 이야기[17:10-17:30]')

St. 바오로 여행사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문의 : 062) 381-9004

다낭(베트남) (3박5일-베트남항공 베트남국적기 이용) 출발일 : 7.16(화), 9.24(화)
이태리, 프랑스, 스위스, 독일 수도원 순례(11일) 9.5(목)-15(주일) / 이스라엘, 로마(11일) 10.1(화)-11(금)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kccei.com

광주가톨릭문화원 가톨릭갤러리 현 책더하기사랑도서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T. 062) 380-2210~5

2019 여름학기특별강좌 수강생 모집

[발성명가곡교실 / 초급] 기간 : 7.3-8.28 / 수 / 8주 시간 : 10:00-12:00 수강료 : 8만 원
[통기타 / 그룹(입문)] 기간 : 7.1-8.26 / 월 / 8주 시간 : 10:00-12:00 수강료 : 8만 원
[통기타 / 그룹(야간)] 기간 : 6.17-8.12 / 월 / 8주 시간 : 19:00-21:00 수강료 : 8만 원
[실버성가무용] 기간 : 6.17-8.19 / 월 / 8주 시간 : 10:00-12:00 수강료 : 6만 원
[시낭송을통한 감성스피치] "여름에 부르는 4월의 노래, 청록파 시인 박목월을 만나다"
기간 : 7.3-8.28 / 수 / 7주 시간 : [주간A] 10:00-12:00 / [야간] 19:00-21:00 수강료 : 7만 원
기간 : 7.4-8.29 / 목 / 7주 시간 : [주간B] 10:00-12:00 수강료 : 7만 원
[우리춤체조 / 2급(초급 / 주간)] 기간 : 7.4-8.29 / 목 / 8주 시간 : 10:00-12:00 수강료 : 8만 원
[우리춤체조 / 2급(초급 / 야간)] 기간 : 7.2-8.27 / 화 / 8주 시간 : 19:00-21:00 수강료 : 8만 원

자격과정 모집

[커피프로마스터] 기간 : 7.1-8.14 / 월, 수 / 7주 시간 : 19:00-22:00 수강료 : 50만 원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기간 : 7.1-8.19 / 월 / 8주 시간 : 10:00-13:00 수강료 : 12만 원

• 인터넷 www.kccei.com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및 온라인 결제 가능 • 문의 : 062) 380-2210~5
• 교육 입금계좌 : 광주은행 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교육원)

사회복지법인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둘' 후원 안내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에서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우리 교구 내 산하 사회복지시설, 교정사목, 병원사목,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을 돕는 데 사용합니다.
농협 : 605-01-353182
광주은행 : 019-107-310370
우체국 : 500066-01-013298
국민은행 : 551-01-1449-309

후원회원을 위해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감사미사 봉헌
- '빵 다섯 물고기 둘' 회보 발송(분기별)
-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생애주기별기부 '나눔의 첫걸음' 안내

첫돌, 결혼, 생일, 취업, 축일, 승진, 개업, 퇴직, 회갑 등 의미 있는 날, 특별한 날의 기쁨을 난치병 환우와 미혼모자에게 나눠주세요.
소중한 나눔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문의 : 062) 510-2893

기관 · 단체

남북평화통일기원과 체나콜로기도 인준 10주년감사미사
일시 : 6.24(월) 09:30-12:00
장소 : 염주동 성당 062) 373-4799
미사집전 :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
문의 : 체나콜로기도 봉사회

화요성령기도회
일시 : 6.25(화) 09:00-12:00
강사 : 김계홍 요한크리소스토모 신부
장소 : 가톨릭평생교육원 성당
문의 : 성령봉사자회 062) 382-6002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호스피스교육
기간 : 6.26(수)-27(목) 09:00-17:00
장소 : 성가롤로병원 4층 성심홀
문의 : 10amor@hanmail.net
061) 720-6070

광주대교구 가톨릭간호사회 월례미사
일시 : 6.27(목) 19:00
장소 : 광주보훈병원 2층 원목실
문의 : 062) 602-6372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 · 입학안내
설명회 : 6.29(토) 14:00
대상 : 초6, 중1,2
여름진학캠프 : 7.23(화)-25(목)
문의 : 054) 338-0530

한티가는길 잔치
일시 : 7.13(토) 16:00-21:00
장소 : 한티순교성지 일원
신청비 : 1만 원(석식포함)
경품 : 모닝 1대, LG스타일러 등
문의 : 한티성지 홈페이지
010-3517-5852

포콜라레 여름 마리아폴리
일시 : 7.26(금) 10:00(2박 3일)
장소 : 순천 청소년수련원(남여노소)
문의 : 포콜라레 062) 222-2800

한티순교성지 피정
일시 : 7.6(토) 16:00-7(주일) 13:00
주제 : 그대 어디로 가는가(순례음악)
강사 : 홍승란(한티순교성지)
문의 : 054) 975-5151

도예피정 '나를 빚는다'
일시 : 6.24(월)
장소 : 살레시오 영성의집
비용 : 4만 원(택배비 포함), 20명 선착순
문의 : 062) 373-8712, 010-3866-2248

제주 성 이사돌 자연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기간 : 7.5(금)-7(주일), 7.10(수)-13(토), 7.28(주일)-31(수), 8.2(금)-4(주일), 8.6(화)-8(목), 8.15(목)-18(주일)
대상 : 개인, 가족, 본당단체 등
문의 : 064) 796-9181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일자 : 7.29(월) 코카서스 3개국 12일 489만원
9.7(토) 추석특집 이스라엘 9일 385만원
9.8(주일) 추석특집 그리스 일주 11일 439만원
9.14(토) 추석특집 일본 나가사키 4일 130만원
문의 : www.cpbctour.co.kr 02) 2266-1591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여름 성음악연수
일자 : 8.1(목)-3(토)
장소 : 가톨릭대 성심교정
주제 : 성음악훈련과 성음악지침
내용 : 그레고리오성가, 합창지휘, 성악실기, 오르간반주, 성음악 기초이론 및 작곡
교수진 : 최호영 신부, 신기호 신부 외
연수비 : 30만 원(숙식 및 교재비)
우리 1002-044-623614(박재광)
문의 : 010-4513-7605, 010-6395-1181

가톨릭세실리아성음악협회 성음악 교육피정
일자 : 8.23(금)-24(토) 1박2일
접수마감 8.13(화)까지
장소 : 예수 고난회 명상의집(우이동 소재)
주제 : 미사전례와 시간전례
강사 : 최호영 신부, 최대환 신부, 박재광, 고승익, 송기창
참가비 : 15만 원(숙식 및 교재비 포함)
우리 1002-044-623614(박재광)
문의 : www.cecilkorea.org 010-4513-7605

33회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영어캠프
국가 : 캐나다, 필리핀
대상 : 청소년, 대학생, 가족연수
문의 : 국제교류팀 070-4365-7297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내용 : (국내입양) 입양상담 및 미혼모 상담
홈페이지 : www.holyfcac.or.kr
문의 : 02) 764-4741~3

수 도 회

사랑의씨튼수녀회 수도원체험피정
기간 : 7.6(화) 14:00-7(주일) 14:00
장소 : 사랑의씨튼수녀회 본원(본촌동)
문의 : 010-5705-5004(35세 미만 미혼여성)

살레시오회 여름 성소대피정
기간 : 7.19(금)-21(주일)
장소 : 충남 태안 살레시오 피정센터
대상 : 중 · 고생, 대학일반(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 010-5159-3949, 010-3894-1332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 수시가능
장소 :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 043) 295-5940

글라렛수도회 광주후원회 6월 모임
일시 : 6.24(월) 14:00
장소 : 남평 글라렛영성의집
문의 : 010-7140-2084

글라렛수도회 여수후원회 6월모임
일시 : 6.25(화) 14:00
장소 : 동산동 성당 교육관
문의 : 010-7140-2084

예수고난회 침묵피정
기간 : 7.29(월) 16:00-8.1(목) 15:00
장소 : 일곡동 예수고난회 명상의집
문의 및 비용 : 062) 571-5004, 18만 원

통신교리(우편 · 인터넷) 안내
- 본당 교리반에 나갈 수 없는 예비신자와 첫영성체 교리 대상 신자
- 다시 교리공부를 하고자 하는 신자

* 세례 받을 본당의 사제와 면담 후 신청서 작성
* '교구 홈페이지(www.gjcatholic.or.kr)-교구청 소개-사목국-통신교리 배너'를 클릭하면 이용 안내 및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062) 380-2832

상설고해소(평생교육원 성당)
운영시간 : 화요일 13:30-15:00
금요일 18:30-20:00
문의 : 062) 380-2210~5

신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빛고을 주보'의 '명예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교구소식, 지구소식을 전하는
열정있는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사무처 홍보 062) 380-2811

신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보, "신앙과 삶"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내용 : 신앙체험 이야기
성명 · 세례명 · 주소 · 전화번호 · 소속본당 명기
분량 : A4 2/3장(11point), 원고지 6장 이내
접수 : 이메일 hongbo@gjcatholic.or.kr
우편 6199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980
천주교광주대교구 사무처 홍보 담당자 앞

* 참여하신 분들 중 선정된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